

医療人か 患者

현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지구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이는 사회가 發展하고 細分化 됨에 따라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직업들이 현재 우리들 생활속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직업을 土台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직업의 종류가 많을 뿐만아니라 개개의 직업에 從事하는 사람들 또한 많고, 모두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화제는 날마다 꽃을 피운다. 즉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자신에게는 자랑스럽고 矜持와 聖스러움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다른 분야의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이웃이나 사회는 아랑곳 없이 자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사회에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람도 있다. 반대로 자신의 직업에 보람을 느끼며 충실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使命感과 함께 사회의 讚辭를 받는 경우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문으로만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과 같은 뉴스 매개체를 통하여 자주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실제로 필자같이 사회소식에 어두운 사람도 자기 일에 충실한 나머지 가족을 고생시켰어야 했던 공무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새싹에게 대대적인 사업, 疾病 予防을 위한 약제개발, 무료봉사,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의사나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과 땅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건들도 알고 있다.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그 직업에서 당연히 遂行되어야 하는 정도에서 脫線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다. 첫째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들 각자는 사회의 일원이며 자신이 하고있는 일이 자신 또는 개인 가정에만 局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큰 기계의 기능을 担当하는 부속품으로서 사회 전체의 기능을 癱痺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정신과적으로 약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일 것이다. 둘째로 직업선택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취미, 적성, 능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자신을 評價하고 현실에 맞추어 選擇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유나 현실에 맞추어 직업을 선택한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로 본인의 의

전은 무시된 채 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전공학과를 다니다 중도에서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 두거나, 졸업은 그럭저럭 하였으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직업을 택하고 또는 전공한 분야에서 직업을 擇하였다 할 지라도 하는 일에 흥미는 커녕 싫증을 느끼며 직업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일에 무관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로 남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는 식의 행동이 容納되어 온 社會構造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 이외에도 문제는 많을 것이다. 하여간 직업의 종류가 많고 이에 생활터전을 둔 인구가 많은 만큼 직종에 따른 화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한 과거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작고 큰 일들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 되어진다.

그러면 필자가 속해 있는 醫師라는 직업은 어떠한가?

사회에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들 중에는 우리의 정도를 離脱하는 사람은 없는가?

내 자신은 의사라는 직업에 어떻게 臨 하고 있는가?

이상적인 의사의 像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年輪과 經驗이 적은 필자로서는 어느것 하나 알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回避하려는 인간의 本性 때문인지 혹은 너무나 의사생활을 단순히 해온 결과인지 알 수가 없다. 간단히 원고 請托을 받고 몇일 생각을 해 보았지만 확실한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 따라서 얼마 안되는 필자의 의사생활을 통해서 보고 들은바를 적고자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의사생활 자체는 남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편하고 멋을 즐길 수 있으며, 호화롭고 안락하며, 존경받고... 그런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직업처럼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필요하며, 忍耐와 努力, 使命感과 矜持를, 자신을 犧牲할 줄 아는 獻身的 마음이, 두뇌가, 그리고 때로는 사생활을 버

릴 수 있는 외골수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充足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과정도 다른 특수 직종과 달리 인간교육과정인 예과과정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보통 기계와는 달라서 한번 쓰고 버리거나 쉽게 수리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保護하기 위한 본과과정이 있다. 이도 부족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의 특수 修練過程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실적이 없으면 독자적인 진료를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臨床醫가된다고 하여도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이 사람을 직접 대해야 되고 그 결과가 있는 사실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可變性이어서 기계나 수학 공식처럼 $1+1=2$ 가 아니라 0 또는 2, 3, 4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誤解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법의 制裁를 받게 된다. 다시 이야기 해서 다소의 여유도 없이 항상 緊張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직업이다. 이런 이유에서 모두들 선생님이라 부르고 尊敬받는 직업으로 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현재는 일부에서 인기있는 직업으로 評價하는가 하면 나쁘게 評價하는 사람들도 있다.

尊敬받는 직업이 인기있는 직업으로 평가 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시대적으로 보아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複雜해짐에 따라 권력 사회에서 경제적인 사회로 變化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이 생활과 직결되고 세계대전, 세계적 經濟恐慌 등의 여건에 따른 직업의 안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의료직을 택하려는 인구가 增加된 이유로 보여진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36년간 일본치하에서 생활할때 외부의 큰 干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의사로 생각되며, 6.25 사변과 그후에 연속되었던 政治, 經濟 등의 영향이 일반 대중에게 안정되고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의사에게로 關心이 쏠렸던 것으

로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사회경제가 안정 되어가는 지금의 고등학생들의 대학 지망 학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과거보다 의과 대학 지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힘들게 노력하고 자신을 犠牲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신문과 방송으로 보도된 것처럼 法的制裁를 받으면서까지 의사 사위에게 경제적 惠澤을 주고 시집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수련 병원의 총각선생들에게 혼인 중매인들이 찾아 드는 것을 보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시된 채 인기만 있는 직업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 달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년 열두달 잠자는 시간까지 환자와 關連되어 있어서 자나 깨나 한시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이 환자에 대한 緊張感 속에서 사는 것이 나쁘고, 臨床醫師의 경우는 의사에게도 병을 정확시킬수 있는 전염성 환자, 죽은 사람 등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X-선과처럼 위험한 放射線에 露出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에 따라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하루종일 환자진료에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가정에 시간을 割愛하지 못하며 즐거워야할 가정에 누가 미치거나, 진료하는 과정에서 感染을 받거나 신체적 損傷을 받는다면 이는 누가 슬퍼해 줄것이며 補償해 줄 것인가? 단지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의사의 사명감에서 일하다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損傷을 使命感 하나 만으로 甘受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다른 의미에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기 치료를 하였으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을 誤診하여 사망하였거나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무速한 치료가 없어 응급환자가 사망하였다』 『잘못 치료하여 불구가 되었다』 『응급실에 의사

가 없었다』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으나 의사의 얼굴은 한번도 볼 수 없었다』 『병원의 서비스가 나쁘고 불친절하다』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환자측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도 있고,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도되어 세상을 떠들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의사가 의사로서의 職分을 忘却하였다거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指摘되는 사항들은 확실히 규명되고 있고 또 규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환자의 입장에서 볼때 환자측은 의학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발달되고 진보한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糾明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진료상에 허점이 많고, 진료 차체는 기계를 고치거나 수확공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생명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과서에 있는 방법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많은 의료기계는 하나의 수단으로 진료를 도울 뿐이며, 실제로는 기계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두뇌와 손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소의 誤差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환자측은 단지 환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만을 생각할 뿐 환자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의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 판단없이 이야기 하는 수가 많다. 어느 의사가 환자를 回避할 것이며, 잘못되도록 치료 하겠는가? 그때 그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직종이나를 莫論하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같이 인간으로서의 良心, 道德, 자신에 대한 矜持가 缺如되고 교육과정이나 직업선택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람들이

의료계에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된다. 그러나 만일 의사로서의 양심과 본연의 자세를 忘却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 이기는 하나 의사가 다른 사람처럼 인간이라는 점을 떠나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논할때 이상적인 의사의 상은 어떤 것 일까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이를 필자 나름대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어느 의과대학을 막론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기에 앞서 다같이 손들어 의성 「히포크라테스」 서약문을 선서한다.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1.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2.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3.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4.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5.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6. 나는 직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7.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8. 나는 인류, 종교, 국력, 정당, 종파 또는 사회적 지위의 여하를 초월하며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9.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의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10.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받으려하노라.

이와같은 서약문은 우리가 의사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잊지 말아야할 기본자세로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지켜야할 마음 가짐인 것이다. 그러나 서약문을 서약할 당시 그 내용을 하나 하나 피부로 느끼고 날마다 마음속에서 생각해보는 사람은 드물고 막연히 환자에 대한 精誠

만으로 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약문을 항시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가끔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가 의과대학 졸업과 함께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시작한지 한달이 될까 말까 한 시기에 대선배님께서 뜨거운 차 한 잔을 주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의사가 되었느냐』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의사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등 여러가지를 물으신 다음 다음과같은 말씀을 하여주셨다. 첫째 환자를 대할때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가져라. 둘째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신께서 하실 수 있는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 해라. 셋째 베스트를 다해라.

이상의 세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당시 聖醫 「히포크라테스」 서약서 만큼이나 감명 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의 能力과 誠意, 儀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실행하기에 어려운점이 있어 두렵기는 했으나 선배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했으며, 후배들에게도 시간 있을때마다 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 자신도 생활하다보면 선배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고, 후배들에게도 다시 일깨워 줄때가 있지만 의사로서 최소한 가져야할 마음 가짐이 아닌가 생각한다. ■

27면에서

산되어 있어 일하는 간호원의 동선을 단축시키고 있다. 역시 수술부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입구 가까이에 는 경의실이 있다.

6. 끝으로

우리나라의 I. C. U. 시스템은 오늘날까지 외국에서 수입된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도 이미 10년이상의 경험을 쌓았으므로 그와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I. C. U. 의 세부적 검토가 되어야할 시점에 다른 느낌이 든다. ■